

인간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후 치료와 요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통하여 빈곤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2월 1일 정부와 의료단체는 가입자단체의 불참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의료수가 2.3%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처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도와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다. 건강보험의 주된 수입원(收入源)인 보험료는 표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수입자들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됨으로써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따라서 제도 자체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퇴색하게 된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문제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부터 당기 기준 흑자로 돌아섰으나 올해 다시 1,80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불자 세상보기

김영초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치료 시급한 '건강보험' 제도

적자 재정 상태로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건강보험제도 성공의 관건이다. 건전한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먼저,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서서는 보험료 인상, 본인부담부분 증대, 특별세 부과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직접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정부 기타 외부 지원금 확대 등의 방법이 타당하며, 국민건강보험재정전환특별법에서도 건강보험에 일정 분량의

국고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법규정에 의한 지원의무마저 오히려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담배세를 인상하여 이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보험료만 인상하게 되었다.

다음,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서서는 병만한 건강보험공단 조직의 개편,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 보장성 조정, 과잉진료·과다청구·리베이트 등에 의한 불법·부당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기고 '간화선의 사회화와 국제화' 세미나를 보고

12월 1일 열린 조계종 제3차 간화선 세미나에서 조명제 박사(부산대 강사)는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고려·중국 송대·일본·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간화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진단하고, 전근대 동아시아 간화선의 역사적·사상적 한계와 불교 근대화의 과제와 조계종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씨(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는 조명제 박사의 발제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기고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편집자주>

조명제 박사의 논문(이하 논자는 중국 송대, 고려,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간화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있는 고찰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논문은 지금 이 시대의 간화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도 시의 적절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그 노고에 우선 감사 말씀 드린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남송의 임제종 선승들이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응하면서 표방한 국가의식, 민족의식이 고려, 일본, 베트남의 역사에서 13세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고려와 일본의 선사상은 유희와 깊은 연관관계를 맺거나 그 일치점을 주장한다고 말하고 결국 선불교가 갖고 있는 현실적 사회적사상의 한계성은 주자학에 의하여 극복되고 선불교는 몰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화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밝힌다. 첫째, 간화선의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를 중심

으로 서술한다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건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매우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사상은 사회적 현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을 통하여 그 사상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사상체계를 전제로 한다. 간화선은 처음에 사상체제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간화선의 사상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한다면, 우선 일정한 사상체계부터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계나 수행현장의 일선에서도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가



생기는 간화선의 왜곡이 보이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문제제기로써 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간화선을 살려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화선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이기에 간화선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다.

셋째, 간화선을 정치적 관계 속에서 승가와 사대부와 같이 특정 집단의 성격에 맞추어 논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점은 간화선의 사회화와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우선 사회화나 대중화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신분에 국한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류적 측면

간화선을 정치적 관계 속에서 논의하는 것 '사회화'와 거리 멀어

보다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논문에서 간화선을 수행방법론적 측면에서 벗어나 논하고자 밝히고서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정한 사상체계의 제시없이 말한다면 그 기준을 세울 수 없어 서로가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할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 문제제기와 간화선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고, 뿐만 아니라 그 답을 간화선에게 요구할 뿐 간화선의 사회화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더욱이 그 비판은 간화선 그 자체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간화선 수행자(대해포함)들의 사회적정치적 관계를 들이 간화선의 비판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기에 간화선 수행자와 간화선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간화선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그것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고찰해야 할 것이다.

조명제 박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서 주체의 내면적 심리적 전환이 직관적 세계의 변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현실순응적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관점일 뿐,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로서 통용될 수는 없다.

사회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개개의 인간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도 존중해야 한다. 만약 그것을 부정한다면 불교가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간화선을 부

는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해 정부와 의료단체간 수가협상에 서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의료단체들은 유형별 분류를 위한 공동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핑계로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깨버렸으며, 정부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다라서 정부가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의료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과 현재 진료수익의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메커니즘은 빈곤계층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빈곤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실

승가교육은 종단의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승가대학 교직원회의에서 교과과정의 현실화 개편에 대한 제기는 있었지만 혁신적 교육개혁안을 총림의 결의로 실행의지를 가결한 것은 이번 해인사가 처음이다. 사실 승가교육은 고려시대부터 시행해오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성이 너무나 결여된 상태였다. 개정해 삼학은 승가교육과 수행의 기본이다.

이번 해인사에서 개편한 교육과정을 보면 과거의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전혀 그러한 열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계종은 선승으로서 선수행을 중심과제로 한다고 하지만 승가의 기본인 계율과 원시경전을 무시하고 대중불교를 표방하거나 선수행을 한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교육체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에 개편된 교과과정을 보면 기본교육 4년간 불교전반과 조

강원 '혁신'의 과제들

계종지를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교과목이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다. 수행자로서의 필수적 인성의 계발을 위한 일반교양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단히 획기적인 용단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인들이 사중 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승가대학의 교육목적과 상당한 괴리감이 없지 않았다. 물론 율령도 생산적 자립경영의 차원에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루 수업시간이 오전 두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수준 높은 교육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또 사회 정규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교육수준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 승가대학에서는 단순히 4년이란 과정만 이수하면 졸업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해인사가 철저한 검정과 평가를 통하여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의 지도력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개혁은 해인사 자체만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단의 교육 최고기관인 교육원에서 전체 기본교육기관인 동국대의 중앙승가대, 지방승가대학의 공의를 거쳐 종단적 차원에서 실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의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단차원의 교육개혁적 용단과 사찰운영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법사(동국대 석학) 교수

'연대' 민명 심민섭

하안거 동안거

더위도 추위도 없으니...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까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정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연족, 연족, 연족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자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다시보는 新 양택풍수실기론

최고의 주택에서 살아 풍요로워지고 큰인물이 난다!
새로운 건축 인테리어는 이렇게 한다.

훌륭한 건물과 이상적인 주택

풍수지리는 엄연히 음택론(陰宅論)과 양택론(陽宅論)의 두 분야로 성립되어 있다. 근래에 와서 풍양은 물론 서구 등에서도 양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양택이 오늘날의 '훌륭한 건축물'을 뜻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관공서, 기념 건축물들과 함께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속삭이고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인 '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모든 민명(命)은 음식(陰食) 주방이 길이면 사람도 길하고, 주방이 흉하면 곧 사람도 흉해진다.
- 주역 양택삼오 64괘를 풀 수 있다.
- 이사법 자세이 설명

한국풍수지리 연구원장 김석주 저 / 신국판 / 424쪽 / 정가 25,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그림 당사주 대전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적천수 형의(上·下)

서툼배판/이선중 저/25,000원 4x6배판/이선환, 전호일 공저/25,000원 신국판/양정분/김정진 저/30,000원 신국판/양정분/공유성 저/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종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영민 편저 / 신국판 / 양정분 / 값 50,000원

송철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학의 목적은 단원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운을 누선하시 말고 신비롭게 감응을 받힐 수 있어야 하므로 정철을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철 스님 저 / 신국판 / 양정분 / 817쪽 / 정가 50,000원